



광주공원 인근 한옥을 개조한 미디어아트 전문 민간갤러리 '홀앤코너 엠'이 새롭게 문을 연다. 한옥의 모습을 그대로 살린 이곳은 '미디어아티스트의 사랑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광주공원 자락 낚은 한옥, 갤러리 되다

### 미디어아트 전문 '홀앤코너 엠' 오픈... 정원·카페·세미나 공간 갖춰

### 지역작가 전시·공모전 통해 콘텐츠 생산... 2월까지 남수씨 초대전

광주공원 자락의 낚은 한옥을 개조한 미디어아트 전문 민간 갤러리 '홀앤코너 엠'(Hole and Corner M)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광주의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신청에 따라 미디어아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어 관련 갤러리의 활동이 기대된다.

지난 2010년 광주에서 열렸던 '디지털스타' 총괄기획자였던 엘비스 김(47·분별 김현중)과 전시기획자 겸 설치작가인 문경리(42)씨 부부가 미디어아트 전문 갤러리를 열기 위해 사비를 들여 남구 서동의 낚은 한옥 1채를 매입한 것은 지난해 5월이었다.

이들 부부는 50년 넘게 주택으로 쓰였던 이곳에 99㎡ 규모의 전시실과 정원, 카페 등을 갖춘 이색 공간 '홀앤코너 엠'을 만들어냈다. 한옥 나무 기둥을 그대로 살리고, 넓은 정원이 내다보이는 이 전시공간은 첨단 전자 장비로 창작된 미디어 아트와 이색적인 만남의 장소다. 특히 이곳은 주택가에 위치해 있어 느긋하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

고, 작가들의 세미나 공간을 마련하는 등 광주지역 미디어아트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시아 작가 발굴과 갤러리·카페를 운영하고 미디어아트 전시를 기획하게 될 민간 법인 'DNA'(Digital Art Network of Asia)도 이곳에 동지를 틀었다. '홀앤코너 엠'은 기획과 전시, 평가가 한 곳에서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춘 셈이다.

앞으로 '홀앤코너 엠'은 새로운 미디어아티스트 발굴을 위한 공모전인 'RNA'(research of new asian artist)를 열고, 다양한 미디어아트 콘텐츠도 생산할 계획이다.

갤러리 이름 '홀앤코너 엠'은 문씨가 지난 2009년 5월 서울 마포구 서초동에 문을 열었던 '스페이스 홀앤코너'(Space Hole and Corner)에서 따왔다. 모퉁이처럼 보잘것없는 곳에서도 문화를 꽃피우고, 개인적인 활동에서 출발한 예술이 결국엔 사회적으로 확산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문씨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고, 아시아 미디어아트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곳에서는 정식 오픈에 앞서 오는 2월 28일까지 사진과 미디어를 결합한 이색 작업을 선보이고 있는 남수씨의 초대전이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남씨는 'space, promenade'를 주제로 체코 프라하, 프랑스 런던 등 전 세계를 돌며 카메라 앵글에 담은 풍경을 다양한 미디어 기법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인다.

'인상과 지베르티에서 걷다'는 모네가 수련을 그렸던 현장을 카메라에 담아 출력한 뒤 모네의 그림과 비교한 작품이다. 수양버들과 수련이 피어있는 모습이 실사와 모네의 그림을 오가며 환상적으로 펼쳐진다.

또 프라하의 그림 같은 풍경을 담은 대형 작품 '보헤미안 블루 프라하를 걷다'는 하늘과 강, 도심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어우러진다. 문의 062-652-651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미디어큐브 338'·'미디어 엑스' 미디어아트 갤러리 앞다퉈 오픈

최근 광주에 미디어아트 갤러리가 앞다퉈 문을 열고 있다. 또 미디어아티스트 육성을 위해 광주문화재단이 레이저댄스 프로그램을 여는 등 질적, 양적으로 미디어아트가 성장하고 있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해 빛고을시민문화센터 1층에 미디어아트 전문갤러리 '미디어큐브 338'을 오픈한데 이어 레이저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미디어큐브 338'에서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 '광주 미디어아트 Now' 특별기획전이 열리기도 했다. 이 전시에서는 나병규·박상화·방우송·손봉재·신도원씨 등 10명의 작품을 선보였다.

또 '광주 미디어아트 Now'관을 열다'를 주제로 한 전시연계 워크숍을 열려 참여 작가들과 서울국제미디어아트비엔날레 윤진섭 전시총감독과 2011

아트광주 이지윤 아트디렉터가 열린 토론회도 펼쳤다.

'미디어큐브 338' 인근에 자리를 뜬 레이저댄스 공간에는 박상화·이이남·정은하·진시영·김인정씨 등이 입주했다.

미디어아티스트 신도원씨가 지난해 문을 연 광주 개인시장의 '미디어 엑스'(MEDIA-X) 갤러리도 시장 내 빈 점포를 개조한 이색 공간이다. 노출 콘크리트로 꾸며진 99㎡(30평)의 전시실을 갖추고, 장석원·김일태·박상호·박상화·권승찬·임순중·나병규·이이남씨 등이 참여한 개관전을 열었다.

또 솔라이클립스 그룹회원 등이 참여해 퓨전 미디어아트 쇼를 열기도 했고, 그룹사운드와 테크노 디제이를 초청해 첨단영상과 퍼포먼스를 결합한 라이브아트 쇼 등 이색 행사도 열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광주전남작가회의의 17번째 작품집 '작가' 펴내

### '글을 낚는 집' 입주작가 작품 특집으로 다뤄

광주·전남작가회의(회장 김경운)가 회원들의 작품을 담은 작가 제17호를 냈다. 이번 호에는 담양의 문학 창작스튜디오 '글을 낚는 집' 입주 작가들의 작품을 특집으로 다뤘다.

'시와 삶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특집을 통해 황학주 시인과 문학평론가 신덕룡(광주대 교수)씨가 각각 '좋은 시를 생각할 때 떠오르는 것들' '큰길에는 헛터가 없다'는 글을 실었다.

박찬세·송만달·심지아·이태관·전윤호·전서봉·최준·최호일·한우진·홍일표씨 등 '글을 낚

는 집' 작가들의 시를 수록했다.

또 고선주·고성만·김경운·김선태·김인호·나종영·박두규·박종화·서애숙·염창권·이지탑·이인범·조성국·함진원·허형만 시인의 주옥 같은 시를 곁들였다. 이진·장정희·정감철씨의 소설과 김성범씨의 동화도 함께 실었다. <심미안·1만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2011 우수문학도서 '두근두근 내인생' 등

김예란의 장편소설 '두근두근 내 인생', 최충현의 시집 '고양이의 마술', 김혜연의 동화 '코끼리 아줌마의 햇살 도서관'이 '2011 올해의 우수문학도서'로 25일 선정됐다.

우수문학도서 보급사업을 주관하는 한국도서관협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회관 주최로 지난 한 해 분기별로 선정된 241종의 우수문학도서 가운데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세 작품이 분야별 최고의 책으로 뽑혔다. /연합뉴스

심미안위원들은 '두근두근 내 인생'이 "따뜻한 서사적 문체가 강한 흡입력으로 이어지는 매력적인 작품"이라며 "우리 시대의 화두인 생명의 문제를 소년과 노년, 활력과 병, 믿음과 배신의 서사로 겹쳐 낸 작가적 역량도 돋보였다"고 평했다. /연합뉴스



## 광주장로찬양단, 동남아시아 선교 찬양여행

광주장로찬양단(단장 윤재우 장로)이 동남아시아 선교 찬양여행을 떠난다. 광주장로찬양단은 27일부터 2월 1일까지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제9회 해외선교찬양단 행사를 진행한다.

오는 29일 오전 11시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인도네시아 바탐의 바탐광안교회에서 현지인 350여명과 함께 찬양행사를 갖는다. 이번 여행에서는 현지에서 활동

하는 선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해외 지역 선교의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지난 1992년 창단된 광주장로찬양단은 광주와 인근 지역 71개 교회 101명의 단원으로 구성됐으며 1997년에는 워싱턴에서 열린 세계인종화합 대합창제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기도 했다. 또 해마다 정기연주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미국, 태국, 캄보디아 등에서 찬양공연을 진행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희망찬 壬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한 해 보내주셨던 관심과 사랑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올 한해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고객님 한분 한분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30년 전통의 한정식 (기본3인이상) A코스 - 38,000원 B코스 - 33,000원 C코스 - 25,000원  
 평일 주중 점심특선 오찬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신년 모임을 위한 떡국정식 (기본3인이상) 15,000원

금수장관광호텔아리랑하우스 |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연회장 | 광주 외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www.geumsoojang.com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흥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흥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